

탄식·슬픔·공감... 이해인 수녀와 나는 '하나의 봄, 고운 이야기'

"수녀원 들어간 지 벌써 60년이다 됐어요. 지금까지 독자로부터 시를 쓰며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눈물의 진수를 독자들이 알아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략)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겁바섯이 피어 있는 모습을 봤죠. 로션을 바르면서 '나도 잘 관리했으면 이영에 씨처럼 예뻐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수를 치며 공감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어렸다.

지난 16일 이해인 수녀 초청 행사가 열린 하나는 행(은행장 이승열) '컬처뱅크 광주' (하나은행 광주지점 1층, 전일빌딩245 1층). 이해인 수녀의 달변으로 시종일관 좌중에선 웃음꽃이 만발했다. 중간 중간 탄식과 슬픔, 공감의 추임새도 섞여 나왔다.

'하나의 봄, 고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이야기는 광주 하나는행이 명사 특강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컬처뱅크는 광주 하나는행이 '소통 공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주철환 PD, 김용택 시인 등 명사들이 다녀갔다.

이날 약 90여 분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이야기가 지난 스토리의 힘, 시가 지닌 감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쾌하고 명랑하게 말을 풀어내는 시인에게서는 암투병 환자라는 느낌이 조금도 배어나오지 않았다.

행사장에는 중년 여성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광주 하나는행 '명사 특강' 수도원 60년 생활·시 이야기 등 시민들과 90분 대화의 시간

지 5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인 수녀가 들려주는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해인 수녀는 강연 앞부분에서는 젊은 시절 수녀원에서 겪었던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수녀원 생활은 청중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넘어 박장대소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젊은 시절엔 연극을 많이 했어요. 어느 때 관객들에게 '여러분 박수도 쳐달라'고 청했는데, 지도 수녀님께 바로 불려가 '겸손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들곤 했어요. 또한 무대에 오르기 전 치장을 위해 거울을 자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 '허영심 많다'고 혼나기도 했죠."

재미난 일화는 그뿐 아니다. 어느 때는 낯선 남자가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맞닥뜨릴 때도 있었다. 남자가 가고 나면 '수녀원선생님이 '누구냐고 꼬치꼬치 묻곤 한다'며 '옛날에는 수녀원 규칙이 심해 아는 오빠가 와도 흑여 오해를 받을까 봐 '빨리 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수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은 필수

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규율 이면에, 수녀의 삶 이면에 드러워진 인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수녀원마다 입소하는 젊은 여성들이 눈에 띄게 적다고 한다.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요즘은 수녀가 되려는 이들이 적어 규율이나 훈육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는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는 직접 시 구절을 인용해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특히 직접 조개껍데기에 성경구절이나 시를 쓴 것을 40개나 준비해 가지고 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예전에 문학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개껍데기에 시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며 "오늘 강연을 위해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시인이 쓴 작품은 모두 1500여 편. 시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모두 유작이 될 것이다. 이야기 중간중간 '민들레영토' 등 시와 관련된 구절이나 상황을 언급할 때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해인 수녀의 주옥같은 시를 낭송하는 시간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기 '행복한 풍경', '행복의 얼굴', '5월의 시', '중심잡기', '엄마'라는 시를 낭송했다. 저마다 가슴에 와 닿는 시를 선택해 진심을 담아 낭송하는 순간엔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엄마'라는 작품을 낭송한 스텔라라는 세례명의 신자는 "수녀님의 많은 시들이 좋지만 특히 '엄마'라는 시는 많은 감동을 준다"며 "저 또한 시 속의 엄



16일 이해인 수녀가 '컬처뱅크 광주'에서 진행된 '하나의 봄, 고운 이야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여운을 주었다.

한편 성 베네딕트 수녀회 소속인 이해인 수녀는 첫 서원 때 받은 수도명이 '클라우디아'다. '넓고 어진 바다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뜻을 담은 이름처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

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시집 '민들레 영토'를 비롯해 '이해인의 햇빛일기', '인생의 열가지 생각' 등 다수의 작품집, 수필집을 통해 종교를 초월해 사랑과 위로, 감사의 글과 말을 전하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랜 역사와 성장해온 예술인들의 긴 여정

창립 48돌 한국무등아트협회 27회 회원전, 22일까지 무등갤러리

한 단체를 만들어 50여 년 가까이 지속해왔다면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반백년이라는 시간은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회원들 개개인들이 한마음 한 뜻을 모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국무등아트협회(회장 정기석·무등아트협회)가 올해로 창립 48돌을 맞아 27회 회원전을 열고 있어 화제다.

오는 22일까지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개최 중인 전시는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른다. 서양화, 한국화, 디지털 일러스트, 민화, 사진 등의 다양한 작품 70여 점이 출품됐다.

정기석 회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예술 전시회를 넘어 우리 협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적 열정과 창의성의 축제"라며 "우리 협회가 결

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는 한편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작가로는 박근수, 서원길, 김홍식, 황윤수, 박순덕, 강명순, 정기문, 정원석, 서경애, 정연심, 이명자, 최승우, 박숙자, 정기석, 장복자, 마혜경, 임재율, 김지영, 조주옥, 이경현, 황효선, 임동희, 배수정, 김규린, 김우진 등이다.

박근수의 '천불동 추색'은 설악산의 가을 비경을 담은 작품이다. 섬섬옥수 같은 산의 비경 사이로 흘러내린 맑은 계곡물이 곧 다가올 무더위를 식혀주는 듯하다.

적박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서경애의 '사색의 정원' 작품들은 아련하면



서경애 작 '사색의 정원-어머니'

서도 정감어린 향수를 발한다. 한지를 사용해 희생과 인고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한평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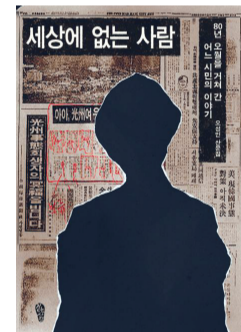
임재율의 '빛 속으로'는 겨울 숲의 사이로 비쳐드는 빛을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사진이지만 풍경화 같은 아우라를 발하는 작품은 작가의 심상과 자연의 소리와 바람, 안개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가폭력에 일조...죄책감에 무너진 아버지

오성인 시인, 에세이집 '세상에 없는 사람' 펴내

광주 출신으로 지금까지 '광주'를 모티브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쳐온 오성인(사진) 시인. 그는 지난해 펴낸 두 번째 시집 '이차는 어디로 갑니까'에서 '광주를 말하지 않고는 시를 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작은 지류와도 같은 일화들이다. 단지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5월의 역사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인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평생 자신 스스로를 독안에 가두듯 속죄하며 살

았다. 아버지의 표현대로라면 '죽어 자빠진' 삶을 살아야 했던 것. 그러던 아버지와는 색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당시의 치아가 얼마 남지 않은 근래부터라고 한다. "절친한 지기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는 죄책감 등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응어리들이 부쩍 허슬해진 입에서 쏟아졌다"는 것이다.

책은 표지에서부터 80년 5월의 분위기를 전한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신문 검열본(전남매일신문 80년 6월 2일자)에는 빨간 펜으로 상당 부분 삭제된 시인 오성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가 수록돼 있다.

오 시인은 "이번 책 발간을 매개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오월의 숨겨진 역사, 일테면 발표 명령자를 비롯해 암매담 관련 진실들이 하루속히 규명되었으면 한다"면서 "한편으로 평생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 시인은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 등을 펴냈다. 대산창작기금과 나주문학상, 내일의 한국작가상을 수상했다.

오 시인은 "이번 책은 거대한 역사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서사도 아니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5·18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주변에 드러워져 있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년들의 로맨틱 '러브스토리'

극단 DIC, 드라마극 '질투', 22~25일 공연일번지

부인과 이혼하고 비닐하우스 사무실에서 홀로 사업을 하는 '완규' (윤희철 분)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 중이다. 그와 오랜 친구지만 늘 티격태격하는 '춘산' (한중근)은 사업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날 동네 약국 약사인 '수정' (문진희)이 찾아와 완규에게 "단둘이 여행 가자"라는 제안을 한다. 완규는 수정이 춘산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만, 점차 둘 사이의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춘산 몰래 함께 감정을 나누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오해와 갈등을 넘어 중년의 '러브 스토리'를 완결시킬 수 있을까.

극단 DIC(대표 임홍석)가 드라마극 '질투'를 오

는 22-24일(오후 7시 30분), 25일(오후 5시) 공연일번지(금남로 218-9)에서 선보인다. '연둣빛을 넘어가자',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을 집필한 희곡 작가 이만희의 신작이며 차두옥이 연출을 맡았다.

차두옥은 연출의 변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세 속에서 노인들의 연애담 등을 다룬 작품 '질투'는 관객들로 하여금 폭소와 궁경, 공감을 유발할 것이다"며 "지역의 60대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해 리얼리티를 더했다"고 언급했다.

'섹시 그레이(중년) 로맨틱 연극'이라는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이목을 끈다. 출연진은 40여년 연극 구력이 깃든 베테랑 지역 배우들이 다수, 완규 역을 맡은 윤희철은 전국연극제 수상(2006·2010



연극 '질투' 컨셉샷. <극단 DIC 제공>

년)을 비롯해 '오동추야', '칼맨', '관객모독' 등에서 이름을 알린 관록의 지역 배우다.

한중근은 광주연극제, 전남연극제, 경기 연극제 등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닥터 지바고', '다시라기' 등에 출연해 왔다. 광주 연극상, 광주 연극제 최우수상 등을 받은 문진희 배우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2만 원. 12세 이상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